

대학도서관 자원공유 멘토링 현장지원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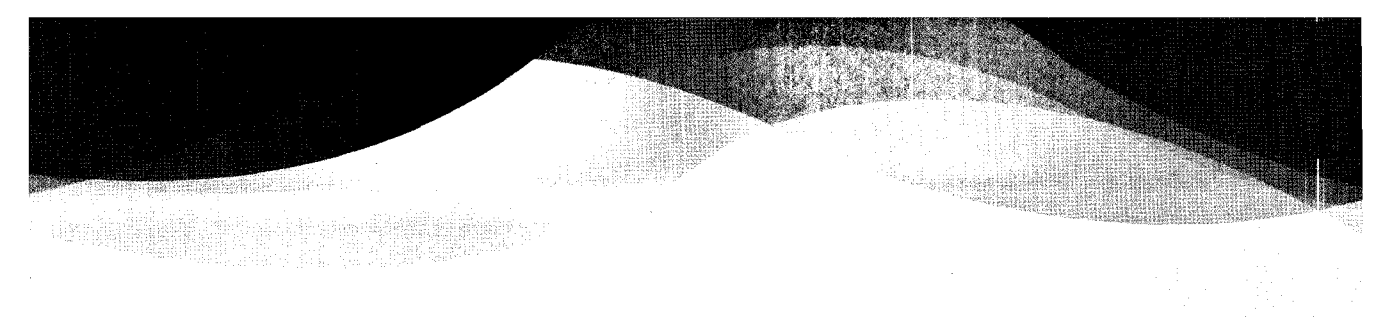


글 | 박 춘 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장
bom@kmu.ac.kr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은 2011년 하계방학 기간 중 도서관 자원공유 멘토링을 모토로 현장지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도서관 자원공유 멘토링은 전공에 관계없이 약 80여 명의 대학생과 10명의 지도교수, 10명의 도서관 사서가 10개 팀으로 나누어 학교도서관, 교회도서관, 기업체자료실, 아파트도서관 등 35개 도서관 현장에서 재능을, 기술을, 노동력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도서관은 동산도서관과 상호협력 협약이 체결된 경상북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10개 학교와 대구광역시 6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대구지역을 벗어난 시외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많아 팀 활동의 범위가 꽤 넓어져야 했다. 교회도서관은 우리 대학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진 대학이니만큼 1학기부터 지원해 오던 도서관 6곳을 중심으로 담당자 교육지원에서 현장 지원으로 그 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기업체자료실은 우리 대학과 가족회사로 연결된 기업체 4곳을 선정하였고 아파트도서관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활동하는 작은도서관연합회를 통해 신청 받은 9개 도서관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멘토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수, 직원은 1주일 정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후 자발적인 신청자에 한해 선발하고 팀 구성 맨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각 팀에 배치되도록 신경을 썼다.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1개 팀당 50만 원 가량의 행사 지원비가 지급되어 봉사활동을 위한 교통비와 약간의 식비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봉사활동의 주요 내용은 학교도서관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멘티 협약, 도서관 현장의 공간구성, 서가 재배치, 도서 재배열, 청소, 환경개선, 독서지도 등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아파트도서관과 교회도서관은 도서정리, DB구축, 서가 재배열,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고 기업체자료실은 자료실 특성상 자료 정리 등의 노동력 제공 부분이 많지 않아 학생들이 기업체 전반적인 곳을 견학하고 자료실의 특징을 공부하는 것과 취업과 관련하여 현장 책임자와 면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봉사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유익한 취업 면접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전공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현장에서 혼란을 덜 겪게 하기 위해 도서관 직무교육이 필수적이었다. 100여 명의 대상자 전원이 참석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학교도서관 특강을 시작으로 도서관 사서들이 도서구입, 등록, 정리, 열람, 배가, 공간구성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인 도서관 업무에 대해 교육하였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교육에서 많은 학생들이 도서구입에서 열람까지의 프로세스를 인식하게 되었고 자료 배가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제부터 멘토링 10개 팀 중 필자가 속한 6팀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첫 만남, 오리엔테이션

우리 팀은 전자무역학과 교수 1명, 일본학과 학생 3명, 문헌정보학과 학생 1명, 기계자동차공학과 학생 1명, 유아교육학과 학생 1명, 법학과 학생 1명 그리고 도서관 사서 1명으로 팀이 구성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만나 교육을 함께 받으며 낯선 얼굴들을 익혔다. 친근하고 환한 웃음으로 학생들을 격려하는 지도교수와의 만남에 학생들 얼굴이 덩달아 환해졌다.

두 번째 만남, 역할 분담

처음 만남보다 훨씬 편안해진 얼굴로 팀원 전원이 도서관 그룹스터디 룸에서 만났다.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들을 만나니 첫 만남에서의 두려움과는 달리 기대가 된다. 우리 팀이 지원활동을 해야 하는 고등학교도서관, 아파트도서관, 기업체도서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였다. 지원을 원하는 쪽의 날짜에 맞춰 전공과 방학 중의 스케줄이 다른 학생들과 일정을 맞추느라 한참동안 조율이 필요했다.

7명의 학생들에게 업무를 분담하는 일도 중요했다. 팀원들의 협의로 우선 팀장을 선출하고 자연스럽게 팀장의 리더로 봉사활동 촬영담당, 행사조율 담당, 간식과 식사 담당,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록담당, 행사 진행 경비 정리 담당, 차량지원 담당 등 각자 업무를 분담하고 나니 벌써 봉사활동의 반을 해낸 것 같다.

세 번째 만남, 구미사곡고등학교 봉사활동



▲ 서가정비와 도서 재배열



▲ 도서실 대청소와 환경정리



▲ 계명대학교 멘토, 사곡고등학교 멘티

도서관 선생님의 요구에 따라 잘못 배가된 서가의 도서를 모두 재배열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지원 나온 고등학생들과 우리 팀원들을 혼합하여 5개로 팀을 나누어 한 팀이 한 서가열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도서 재배열은 좁은 공간에서 전체를 다시 배열하는 것이라 쉽지 않았으나 배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는 도서관인들이 생각보다 잘 협조해 주었다. 우리 팀원들도 청구기호 순이라는 개념을 잡아 가며 15,000권의 도서 정리에 집중하였다.

미리 맞춰 둔 봉사활동 현수막과 단체복 조끼를 챙겨 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아침 8시 20분에 만났다. 작업용 빨간 장갑, 노끈, 포스트 잇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들과 약간의 간식도 챙겼다. 2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구미를 향해 출발! 학교 정문을 나서니 8시 30분이다.

구미사곡고등학교는 구미시 사곡동의 산자락에 위치한 붉은 벽돌의 아름다운 학교였다. 교감선생님 말씀이 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새 건물에 시설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 우리 팀을 반갑게 맞아주는 도서관 담당 선생님을 따라 도서관에 들어서니 학교만큼이나 도서관도 넓고 서가, 책상, 컴퓨터, 소파 등도 모두 깨끗하고 고급스러웠다. 도서관보다 더 마음을 움직인 것은 도서부 학생들이었다. 방학 중인데도 도서부 학생과 그 친구들 17명이 우리와 함께 자원봉사를 지원하러 나와 주었다.

도서관 선생님의 요구에 따라 잘못 배가된 서가의 도서를 모두 재배열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지원 나온 고등학생들과 우리 팀원들을 혼합하여 5개로 팀을 나누어 한 팀이 한 서가열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도서 재배열은 좁은 공간에서 전체를 다시 배열하는 것이라 쉽지 않았으나 배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는

오전 업무를 마치고 맛있는 점심 후 다시 도서관에 오니 서먹서먹하던 오전과는 달리 고등학생들과 대학생 팀원들이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제법 친해졌다. 별명을 부르며 함께 책 정리를 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형과 아우다. 고등학생들은 전공에 관해 궁금한 것을 대학생 언니에게 묻는다. 입시 때 면접을 보는 요령이 따로 있는지 지도교수에게 겁 없이 묻는 고등학생들이 마냥 기특하다. 돈 주고도 못 듣는 입시 면접 특강이 즉석에서 이어졌다.

서가 정리를 마치고는 실내 대청소에 돌입, 막대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 쓸고 닦았다. 소파도 옮겨 실내 배치를 새로이 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상, 서가, 컴퓨터 그리고 새로운 자리를 찾은 책들까지 뿌듯한 마음이 밀려온다.

헤어지기 아쉬운 고등학생들과 기념촬영도 한 컷! 도서관 가을 페스티벌에 꼭 초대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교문까지 배웅 나오신 교감선생님과 도서관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몇 시간의 짧은 자원봉사지만 가슴 한 가득 동생들이, 후배들이 생긴 것 같다.

네 번째 만남, 성당 하늘채도서관 봉사활동



▲ 신간도서 레이블 부착

열흘 만에 만난 팀원들의 얼굴이 모두 밝다.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로 사진을 교환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미사곡고등학교 학생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까지 모두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성당 하늘채도서관은 자생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이다. 도서관 운영은 입주민 중 봉사활동이 가능한 주부들이 중심되어 도서관장, 수서팀, 정리팀, 열람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장서수는 약 8,000권 정도이고 아이를 동반한 젊은 엄마들, 초등학생들이 주요 이용자였다.

하늘채도서관은 사전 답사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였고, 봉사활동에 맞춰 미리 500권의 도서를 신간 구입해 둔 상태였다. 구입된 도서의 등록, DB구축, 청구기호 작성, 연령 구분 레이블 부착,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신간 레이블 부착 등 주로 신간도서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도서대여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이 작은도서관은 청구기호를 일일이 손글씨로 직접 적어야 했고, 네임펜으로 작성한 레이블은 키보드용 레이블을 덧붙이면 잉크가 퍼지는 불편이 있었다. 유아용, 어린이용 도서가 특히 많았고 깨끗한 실내에 종이접기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작품 감상과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었다. 열람시간은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였다.

우리 팀은 남녀 학생으로 구분하여 여학생들은 청구기호를 작성해 주는 것과 여러 가지 레이블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남학생들은 서가의 도서들을 가지런히 재정리하는 것으로 조용하게 봉사활동을 마쳤다. 본인들이 정리했으면 몇 주 동안 해야 할 것을 하루 만에 해내어 신간을 바로 대출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아하는 도서관 담당자들을 보니 우리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다섯 번째 만남, KWC(주) 자료실



▲ 담당자와 문서보관실에서

KCW 주식회사는 자동차 와이퍼를 만드는 중소기업으로 우리 대학과 가족회사로 연결된 기업이다. 대학에서 가까운 성서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가기 쉽겠거니 생각했더니 오산이었다. 우선 성서공단 내에 생산 공장이 7곳이 있어 본사라고 할 만 한 제1공장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 어렵게 찾아간 제1공장은 공장 출입구에서 신분증을 맡기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사전에 연락을 하고 기술연구소 이사님과 면담이 예정되었으나 출입구부터 보안이 심상치 않았다. 팀원들은 공장 분위기에 압도되고 보안을 이유로 사진 촬영도 함부로 할 수 없자 기업체 자료실을 방문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봉사활동과 도서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지만 고무기술연구소의 실험실과 자료실을 방문한 후 연구소 이사와 담당 과장으로부터 KCW 회사 소개와 입사에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을 배우고 견학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 기업체 실험실, 연구소, 자료실, 생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팀원들의 표정들이 어둡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각오들이 생겼단다. 그것만으로도 봉사활동 현장 견학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대학도서관의 자원공유 멘토링 사업의 대상을 선택할 때 기업체는 특별히 사전 허가를 얻고 충분히 논의하여 자원공유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느꼈다.

여섯 번째 만남, 종합평가회

그 사이 벌써 추억이 된 봉사활동에서 찍은 사진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팀 전체의 보고서와 각자가 느끼는 개인 소감문, 그리고 활동사진을 적절히 안배하여 스무 장이 넘는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팀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 방학, 해외연수를 간 친구들이 부럽지 않다고 한다. ☺